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83-224
https://doi.org/10.29212/mh.2024..131.1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

서치종 | 해병대사령부

목 차

1. 서론
2.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수립과정
3.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4. 결론

초 록 현재까지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연구는 계획수립과정과 계획에 대한 연구보다는 실제 수행된 작전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작전계획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계획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제 작전수행과정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www.kci.go.kr

맥아더는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과 함께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에서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제1해병임시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해 취소되었고,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100-B를 기본으로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한 보조계획인 100-C와 100-D, 그리고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경우, 맥아더가 상륙장소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 100-A 4가지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블루하트(Bluehearts), 맥아더, Operation Plan 100

www.kci.go.kr

1. 서 론

오늘날 한국의 안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6·25전쟁이 그 계기가 되었고, 6·25전쟁 중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인천상륙작전(Operation Chromite)이라 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회복시킴으로써 현대전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가장 과감하고 성공적인 상륙작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1)]

또한, 인천상륙작전은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의 효용성은 물론 상륙작전 교리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한 작전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된 상륙작전의 무용론을 불식시키고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상륙작전의 효용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제대구역 편성, '바다로부터의 작전적기동(OMFTS :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 등 현대 상륙작전 교리의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2)] 인천상륙작전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계획이 수립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으며, 능력이 갖추어진 부대에 의해 실시된 과감한 전략 결과의 표본이 되는 작전이다.[3)] 당시의 상륙작전 교리에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최소한 160일이 요구되었으나, 목표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8월 15일 인

1)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1.
2) Headquarters Marine Corps,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Washington: Marine Corps 1996), p.7.
3)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US Marines Operations in Korea Vol.II, The Inchon-Seoul Operation*(Washington DC: USMC, 1955), p.iii

www.kci.go.kr

천상륙작전을 위해 제10군단의 핵심참모들이 편성되어 시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4)]

이처럼 인천상륙작전은 전사 상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널리 알려져 있는 전투 중 하나이지만,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에 대한 연구나 이해없이 실제 수행되었던 전투과정과 전투결과 위주의 편향된 연구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완전한 연구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인 '100-A·B·C·D' 4가지 계획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4가지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제시하지만, 이 4가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100-B·C·D의 상륙장소만 제시하고 있다. 이 4가지 계획이 각각 어떤 내용이며,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시 시행되었던 100-B조차도 그 계획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실제로 실시되었던 전투과정과 결과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계획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야 하며, 작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전투과정과 결과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Chromite

4)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3.

5) 100-A·B·C·D 계획에 대한 연구는 이상호(2019)의 연구가 있음.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www.kci.go.kr

계획의 4가지 100-A·B·C·D에 대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맥아더기념관, 미 육군·해군 및 해병대의 공간사 등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hromite 계획의 계획수립과정과 100-A·B·C·D 계획을 분석하여 인천상륙작전의 계획을 이해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Ⅱ장에서는 한강방어선 시찰 이후 맥아더가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과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제 Ⅲ장에서는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4가지 계획 100-A·B·C·D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4가지 계획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번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수립과정

가. 상륙작전 구상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작전을 구상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연구 자료들에서 맥아더가 이미 6월 말경에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수행한다는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맥아더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소 2주 이내에 그의 참모들에게 한국의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으며, 포괄적인 연구를 거쳐 인

www.kci.go.kr

천을 상륙지역으로 결정하였다.[6] 리지웨이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방법을 찾을 때 맥아더는 승리를 계획했다.”고 말했듯이, 대부분 북한의 남진과 부산 방어에 집중할 때, 맥아더는 이미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7] 맥아더는 7월 말까지는 인천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7월 4일 동경회담에서 북한군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을 토의했고, 이 때 다른 지역보다 인천을 선호했다.[8] 7월 6일 맥아더는 제8군에 상륙작전을 위해 제1기병사단을 준비하고 극동해군사령부에는 제1기병사단의 상륙작전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9]

7월 4일 동경회담에서 북한군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이 토의되었고, 이 자리에서 맥아더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 Group)을 통해서 이미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인 블루하트(Operation Bluehearts)를 계획했다. 이 계획은 미 해병 임시연대전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 전선에서 공격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10] 그러나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고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부대들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투입되었다. 비록 블루하트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는 인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인천에 대한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를 계획하였다.

---

6)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pp.1~2.
7) CSI, *CSI Battlebook 2-D Operation Chromite(Inchon)*(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pp.18~19.
8) CSI, *ibid*, p.19.
9) GHQ, FEC, “APO 500, Operations Instructions No.3”, p.1.
10) CSI, *ibid*, pp.19~20.

www.kci.go.kr

미 합참은 많은 자연적 어려움이 있는 인천보다 군산지역을 선호하였지만,[11] 맥아더는 군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대한 상륙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군을 격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12] 서울-인천지역의 확보는 북한군에게 남한 내 서해안의 최대 항구를 제거하고, 남쪽과 동쪽에 대한 주요 도로와 철로, 병참선을 차단하는 것이었다.[13] 맥아더는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인 이유로 인천 상륙 및 신속한 서울 탈환을 강조하면서 인천은 제8군의 망치(hammer)가 북한군을 격멸시킬 모루(anvil)가 될 것이라 하였다.[14] 서울과 인천을 확보하는 것만이 적으로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5] 군산이나 다른 대체지역은 결정적이지도 않고 혹독한 동계작전이 불가피하며,[16] 적을 38도선 이북으로 서서히 몰아내기 때문에 장기소모전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17] 8월 23일 미 합참의장 콜린스 장군과 셔먼 미 해군참모총장이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을 제안하였고,[18] 미 해군·해병대에서도 서해안에 대한 지형정찰 결과를 토대로 인천에 대한 대안으로 오산·평택 부근의 포승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참모들은 포승면이 중장비 차량을 이동시킬 수

1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1992, p.150
1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p.493
13) "COMNAVFE OP PLAN 108-50, B. Intelligence",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Tokyo, 20 Aug. 1950, p.B-3.
14) Roy E. Appleman, *ibid*, p.493.
15) James F. Schnabel, *ibid*, p.150
16) Curtis A.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n, The U.S. Navy in the Modern World Series N0.2*(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20), p.21
17) James F. Schnabel, *op. cit*, p.142
18) James F. Schnabel, *ibid*, p.151.

www.kci.go.kr

있는 도로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9] 8월 24일, 해군·해병대를 대표하여 태평양함대 해병대사령관 셰퍼드 장군이 맥아더에게 오산·평택 부근의 포승면을 건의했지만 소용없었고, 그 이후 해군해병대는 인천에 집중했다[20] 그러나 8월 23일 상륙지역을 최종적으로 인천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미 합참에서는 군산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21]

나.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 수립과정

6·25전쟁이 발발한 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6월 29일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는 비록 수적으로 열세에 놓일지라도, 전략적 기동방법에 의존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적의 전진을 일단 저지하는 한편, 2개 사단 정도의 후속 병력으로 전선을 보강한다면 전세를 회복하여 반격작전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적어도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22]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상륙전력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한 맥아더는 참모들에게 광범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3]

맥아더는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인천항과 인근의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

19) James F. Schnabel, *ibid*, p.149
20) James F. Schnabel, *ibid2*, p.150
21) James F. Schnabel, *ibid*, 1992, pp.149~150.
2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1983, pp.6~7.
23) Charles R. Smith, *U.S. Marines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History Division USMC, 2007), p.73.

www.kci.go.kr

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의 핵심 도로와 철도를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낙동강 방어선에서 UN군의 공세를 통해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24] 맥아더는 가급적이면 인천에 상륙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포위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25] 맥아더는 인천을 최선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인천 북쪽의 해주와 진남포도 대체 상륙해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26] 7월 4일 상륙작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회의를 통해 인천에 상륙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포위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격한다는 상륙작전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으로부터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미 제1임시해병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의 윤곽을 그리게 되었다.[27] 그러나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7월 10일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다. 비록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와 JSPOG는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28]

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수립과정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어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이 취소되고 상륙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블루하트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

24) Cutis A. Utz, *op. cit*, p.18.
25)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op. cit*, p.6.
26) James F. Schnabel, *op. cit*, pp.140~141.
27)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6.
28) James F. Schnabel, *ibid2*, pp.140~141.

www.kci.go.kr

맥아더는 인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맥아더는 “UN군의 유일한 희망은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적 후방에 상륙을 감행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태평양전쟁 당시 제1해병사단이 보여 준 능력을 떠올리면서 “제1해병사단이 지금 다시 자신의 지휘하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인천상륙작전을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해병사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29]

맥아더는 블루하트 작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제1기병사단을 대체하여 미 본토의 제2사단이나 일본에 주둔 중인 제7사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파병이 계획된 제1임시해병여단을 사단 규모로 확대하여 상륙작전에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맥아더는 가급적 9월 15일 이전에 인천상륙작전에 해병사단이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7월 10일 합참에 해병사단을 최초로 요청했다.[30] 7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운용할 해병사단과 해병항공부대의 전시병력에 대해 두 번째로 요청하고,[31] 7월 19일에 세 번째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병대 예비역의 동원에 대한 의회 승인과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졌고, 우선 미 제1해병사단을 완전편제로 보강하도록 지시되었다.[32]

미 제1해병사단의 가용성을 확인한 이후 맥아더는 알몬드 장군, 라이트 장군과 함께 그의 생각을 토의했고, 라이트 장군과 계획수립반은 9월 중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기본 틀을 준비하고 몇 가지 예비계획을 수립하였다. 7월 23일 GHQ 참모부에 인천상륙작전계획(초안)이 배부되었고,[33] 2개 사단이 9월 중순에

29)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0.
30)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0.
31)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18.
32)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op. cit*, p.22.
33) James F. Schnabel, *op. cit*, pp.141~142.

www.kci.go.kr

적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하고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기본개념을 설정하게 되었다.[34]

7월 25일 상륙작전에 제1해병사단의 파견이 승인된 이후 JSPOG에 의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 계획지침 발행을 위해 특별계획참모부가 설치되었다. 8월 12일 상륙돌격부대를 제1해병사단으로 하고, 목표지역을 인천-서울로 하는 작전계획 100-B가 발간되었다.[35] 8월 23일에는 미 육군·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인천상륙작전 최종회의에서 상륙일자를 9월 15일로, 상륙장소를 인천으로 하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36] 콜린스 미 합참의장은 제8군이 제10군단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남쪽의 군산을 대체 상륙지역으로 제안하였으며, 셔먼 해군참모총장 또한 콜린스 합참의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퀘벡전투의 사례를 들면서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다.[37]

8월 28일 합참은 인천 또는 남쪽의 유리한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승인하면서, 인천에 대해 제기되었던 세부문제들에 대한 발전과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 준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38] 8월 28일 10군단 작전명령 제1호가 발행되면서 미 제1해병사단의 과업은 해안두보를 확보하고, 김포비행장을 탈취 확보한 다음 한강 방향으로 진격하여 서울을 탈환하고, 의명 서울 인근의 감제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여되

34) CINCFE, "Outgoing Message",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23 July 1950, pp.1~2.
35)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p.2.
36) Lynn Mo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ibid*, pp.43~47.
37) Charles R. Smith, *op. cit*, p.86.
38) Charles R. Smith, *ibid*, p.88

www.kci.go.kr

었다.[39] 8월 30일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제10군단의 지정과 최종 부대할당이 포함된 작전명령 제1호를 시달하였다.[40] 9월 8일 미 합참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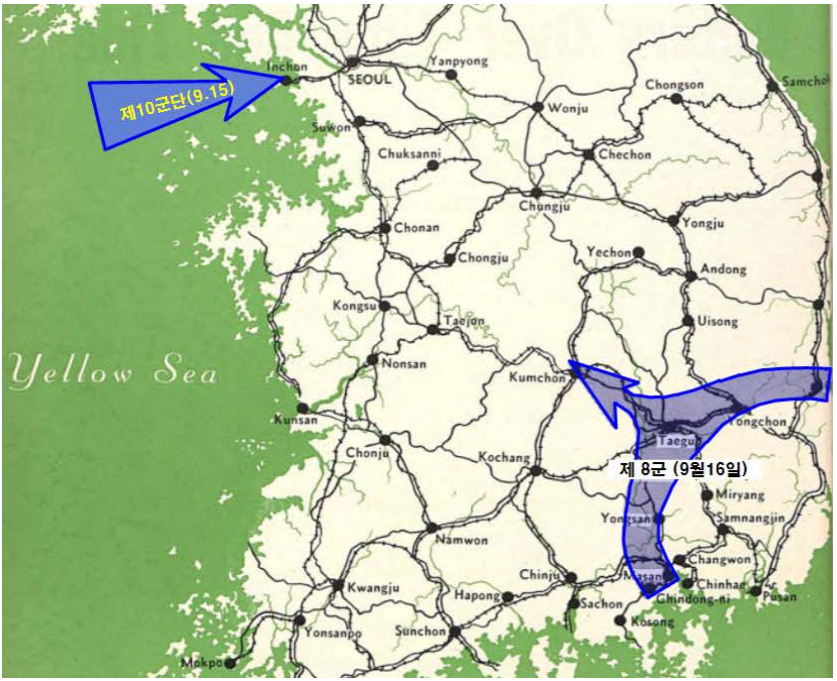
3.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

6월 25일 UN 안보리 의결에 따라 미 합참은 극동군 사령관에게 남한을 제거하려는 북한군에 대해 가능한 모든 군사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남한에서 북한군을 패배시켜 축출한 후에도 38도선 이북에 효과적인 북한의 군사력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UN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남한 내에서 북한군을 일소한다는 UN군의 임무에 따라 남한지역에서 북한군을 최대한 격멸하기 위한 것으로, 목표지역으로 깊숙이 공격하여 핵심 병참선을 확보하고 목표지역 이남의 적을 격멸하는 것이었다.[42]

---

39) Hq X Corps, "Op O #1", Hq X Corps, 28 Aug. 1950.
40)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to 30 September 1950", p.2.; Major David H. Mamaux, *ibid*, p.19.
41) Charles R. Smith, *op. cit*, p.90.
4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www.kci.go.kr



〈그림 1〉 크로마이트 기본계획

* Lynn Montross, "The Inchon Landing-Victory Over Time and Tide, Our First Year in Korea," 『Marine Corps Gazette(July 1951)』,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Marine Corps, 1951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남한 내에서 아군이 반격을 위해 전력을 증강하는 동안 북한 지상군의 전진은 정지되고, 북한군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군은 증강될 것이며, 작전지역 내에서 아군이 공중 및 해상 우세를 유지하고, 북한군은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대규모 증원을 받지 않고, 북한군의 기본적인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 계획이다.[43]

4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2.

www.kci.go.kr

가. 100-A 계획

100-A 계획은 미 합참의 요구에 의해 100-B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다.[44] 금강 이남에서 북한군을 차단하고 격멸하기 위해 상륙작전부대가 D일 군산에 상륙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8군과 함께 대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45] 100-A는 전술한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의 핵심 병참선을 목표로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을 통해 광범위한 포위를 수행하여 미 제8군 전방의 적에 대한 재보급 및 증원을 방지하고 적의 이탈을 차단하는 것이다.[46] 제한요소로는 기상, 가용부대, 군수지원 고려사항 등이 있다. 기상과 관련해서는 기온과 강우 측면에서 유리한 9 ~ 11월에 작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추운 날씨와 비교적 양호한 항공기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용부대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가용병력의 제한으로 인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의 제8군이 효과적인 공세를 취하는데 필요한 전력할당으로 인해 해상돌격을 통한 포위를 위한 추가적인 가용병력은 제한된다. 목표지역의 제한적인 항구시설과 열악한 해안의 특성은 군수지원의 제한을 초래하지만,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군수지원 작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7]

주요 상륙부대로는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특수여단, 제7보

44) James F. Schnabel, *op. cit*, p.151.
4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p.2.
4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4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p.1~2.

www.kci.go.kr

병사단,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제3보병사단(전구예비로 의명 제8군 또는 제10군단 증원)으로 편성된다. 주요 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NAVFE)는 미 해병 제1사단을 제10군단에 제공하고, 상륙군을 군산지역으로 이동시켜 군산지역의 해안두보를 확보, 점령 및 방어하며, 의명 제187공정연대전투단과 제3보병사단을 군산지역으로 이동시킨다. 제10군단장에게 육상 통제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상륙기동부대(Attack Force)는 해체하고 해상지원부대로서 항공, 함포 및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령부(FEAF)는 D-15부터 D-1일까지 목표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의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요청시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차단한다. D일 목표지역 항공구역 해제까지 영상정찰을 계속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목표지역을 고립하고, 목표지역 방공을 위해 최대한의 전투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지역의 긴급요청에 대비한다. 목표지역에서 최대한의 항공폭격을 수행할 준비를 하며,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지정된 투하지역으로 수송, 엄호제공 및 투하할 준비를 하며 공중재보급을 제공한다.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 방향으로 주노력을 수행하고 대전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남쪽에서 공격을 계속한다. 제10군단은 군산지역의 지정된 해안에 상륙하여 대전으로 진출하여 핵심병참선을 탈취 확보하며, 항공기 운용을 위해 군산과 대전의 비행장을 개발한다.[48]

100-A의 작전개념으로, 남한지역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적이 점령한 지역으로 광범위한 포위는 부산 지역에서 시작되는 광범위한 공세와 함께

4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p.2~4.

www.kci.go.kr

이루어져야 한다. 상륙작전으로 시작되는 포위의 목표는 적 주력의 후방에 있는 대전의 주요 병참선이다. 목적은 제8군의 전방에 있는 적의 재보급과 증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의 주요 병참선을 차단하고 적의 이탈을 차단하는 것이다.[49] D일 이전 폭격은 생략하며 H시 이전 폭격은 기동부대(AF)나 돌격부대의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적이 식별될 경우로 제한한다. 제8군은 D일 또는 D일 이전에 지속적인 공세를 개시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고, 제10군단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 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진격한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상륙돌격을 통해 제10군단의 차후 작전을 위한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제2공병특수여단은 사단 전투근무지원부대를 후속하여 제10군단 해안단을 지원할 수 있는 합동해안단을 설치하며, 제7사단과 제10군단의 잔여부대들은 설치된 해안두보를 통해 후속 상륙한다. 해안두보 설치 이후 제10군단은 적의 저항에 대비하여 대전 방향으로 약 50마일 내륙으로 진출한다. 대전이 확보되면 제10군단은 제8군과의 연결을 위해 남서방향으로 계속 공격하거나 대전-대구 축선 이남의 적 격멸작전에 참가하거나 북쪽방향으로 대전-서울 축선으로 공격하거나 또다른 대규모 해상돌격을 통한 포위를 위해 재탑재를 준비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의명 제10군단의 상륙 및 후속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지역의 지정된 투하지역에 공중투하를 실시하며,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거나 공중을 통해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으로 이동한다. 제3보병사단은 전구예비로서 극동사령부의 명에 의거 제8군과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탑재하여 부산 또는 군산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50]

---

4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p.1.

5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4.

www.kci.go.kr

100-A의 지휘관계로, 맥아더는 UN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CINC: Commander-in- Chief)이며, 제8군사령관은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및 공정작전에 운용되는 부대를 제외한 한국내 모든 지상군을 지휘한다. 극동해군사령관은 기동부대지휘관을 통해 해안에서의 작전지휘권이 제10군단장에게 이양될 때까지 군산에 상륙하는 모든 부대를 지휘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목표지역으로 이동 간에는 극동공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으며, 공중 투하 및 착륙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총사령관(CINC) 또는 상륙군사령관, 제10군단장에게 통제권이 전환된다. 해안에서의 지휘권을 인수한 이후 제10군단장은 제8군과의 연결이 유효화될 때까지 총사령관(CINC)의 직접 지휘하에 작전한다.[51]

100-A 계획에서는 제10군단에 대한 부대할당, 군수·인사·민사 계획 등은 별도의 계획없이 100-B의 계획을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52] 이는 100-A보다 100-B를 우선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 100-B 계획

100-B 계획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이다. 100-B 계획은 D일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 이남의 북한군을 차단하고 격멸하기 위해 남쪽으로부터의 계속적인 공격과 함께 서울의 병참선(communication center)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한요소로는 기상과 군수지원요소가 있었다. 기상은 추운 날씨와 양호한 항공기상을 고려하여 9~11월 중에 작전이 완료되어야 하며, 목표지

5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H"-Command Relations", 30 Aug. 1950,
5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p.5.

www.kci.go.kr

역 내 군수지원시설의 제한은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군수지원 작전 수행을 요구하였다.[53]

100-B의 주요 상륙부대로는 100-A와 마찬가지로 미 제1해병사단과 제2공병특수여단, 제7보병사단, 제187공정연대전투단, 제3보병사단(전략예비로 선박 가용 시 해상예비(floating reserve)로 유지)로 편성되었다.[54] 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NAVFE)는 D일 인천지역에 해병 제1사단을 이동 및 상륙시킬 수 있는 기동부대를 편성하고, 해안두보 확보 간 상륙군에 대한 항공, 함포 및 군수지원을 제공하며, 후속부대를 인천지역에 상륙시키고 필요시 후속부대에 엄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FEAF)는 D-30일부터 D-4일까지 작전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 내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며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파괴하고, 목표지역에 대한 지역 폭격을 수행한다. D-3일부터 임무해제 시까지는 제8군의 필요소요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표지역을 고립하고 목표지역의 대공방어를 위해 전투기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륙군의 긴급요청에 대비하며, 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 선정된 투하지점에 투하할 수 있도록 수송 및 엄호를 제공하고 항공재보급을 준비한다. 제8군은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예비부대(제1해병사단 제외)를 준비하고 탑재항만으로 이동시키며 그들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며, 낙동강 방어선에서 주노력을 수행하면서 공격을 계속하여 북한군을 격멸하고 상륙군과 연결하기 위해 대구-대전-수원 축선을 향해 공격한다. GHQ 예비는[55] 인천에 해안두보가 설치되면 육상의 작전권을 인수하여 서

5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2.
54) GHQ FEC,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p.5.
55) GHQ예비는 제1해병사단을 포함한 상륙군과 공정TF(제187공정연대전투단), 후속

www.kci.go.kr

울로 진격하여 병참선을 탈취 및 확보하고 차후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며, 수송기 및 전투기의 작전을 위해 김포비행장을 개발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D일부터 상륙돌격을 지원하거나 후속작전을 위해 인천-서울 지역의 사전 선정된 투하지역에 공중투하한다.[56]

100-B의 작전개념은 남한지역 내에서 적을 일소한다는 UN군의 임무에 따라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해 목표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병참선을 확보하고 목표지역 이남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57]

D일 이전 항공 및 해상작전에 의한 목표지역 고립은 실행 가능한 최대로 유지하며 목표지역에 대한 지상 및 공중 정찰을 지속한다. 상륙지역 내 모든 식별 및 추정된 적 위치에 대해 D일 이전 항공 및 함포 폭격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지원작전으로 D일을 전후하여 목표지역을 항공차단으로 고립하며, D일 이전 제8군은 적 지상군을 봉쇄 및 격멸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개시한다. 상륙돌격은 해군 항공 및 함포로 H시 이전에 상륙지역을 무력화하고 상륙돌격을 계속 지원하며, 제1해병사단은 상륙돌격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제2공병특수여단은 해안단을 설치하며, 제7사단과 후속부대는 설치된 해안두보로 상륙을 실시한다. 상륙 이후 상륙부대는 내륙으로 약 50마일 깊숙이 진출하여 목표지역을 확보하고 적의 핵심 병참선을 차단한다. 제3보병사단은 이번 작전의 전략예비로써 선박이 가용할 경우 해상예

제대(제7보병사단 등)으로 편성,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A, Assignment of Forces to GHQ Reserve", 17 Aug. 1950, p.1.

5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12 Aug. 1950, pp.2~4.

5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1.

www.kci.go.kr

비(floating reserve)로 유지한다.[58]

100-B의 지휘관계는 100-A와 대동소이하다. 맥아더가 모든 UN군을 지휘하며, 제8군사령관은 인천-서울 지역에 상륙 및 공정작전에 운용되는 부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군을 지휘한다. 극동해군사령관은 해안에서의 작전지휘권이 상륙군에게 이양될 때까지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모든 부대를 지휘한다. 상륙군은 해안에 지휘소가 설치되면 목표지역의 모든 지상군을 지휘하며, 제8군과의 연결이 유효화될 때까지 총사령관(CINC)의 직접 통제 하에 작전한다.[59]

다. 100-C 계획

100-C 계획은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군산에 상륙한 이후 대전으로 공격하여 북한군의 배후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60] 인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100-B의 보조계획이다.[61] 즉, 인천에 상륙작전(100-B)을 실시하되,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하는 미 제8군의 반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에 상륙한 부대 이외의 추가적인 부대(증강된 사단)로 군산에 상륙하여 대전을 확보하고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공격하는 제8군의 반격을 지원하는 것이다. 100-C는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인천-서울 지역의 거점을 확보했으나, 제8군이 김천-대전 축선을

5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pp.1~2.
5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H", Command Relations", 12 Aug. 1950, p.1.
60)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참고교범 10-8 상륙전사』, 2008, p.4-16.
61) 보조계획 : 기본계획에 포함된 우발상황 조치계획(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www.kci.go.kr

따라 북서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여 수립한 계획인 것이다.[62] 군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상륙에 운용되는 부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초 상륙 이후 운용될 수 있는 부대가 제한적이며, 적이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확보할 수 있는 해안두보가 넓지 않고 해안두보 외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을 만큼 해안두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제한이 있으나, 제8군 전방의 적을 분산시킴으로써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63]

100-C 계획의 주요부대로는 100-B 계획의 주요부대 이외에 군산 상륙을 위해 증강된 사단으로 편성되며, 이 부대는 제8군에서 제공한다.[64] 주요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는 현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산지역에 증강된 사단을 상륙시키고 해안두보를 탈취, 확보 및 방어하며, 의명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상륙시킨다. 상륙 이후 군산에 상륙한 사단으로 해안 통제권을 이양한 이후에는 함포 및 초기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사령부는 군산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D-15일부터 D-1일까지 목표지역의 항공정찰을 제공하고, 목표지역의 적 부대와 보급 및 방어시설,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파괴한다. D일에는 제8군의 필수 항공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목표지역을 고립하며,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 지정된 투하지점으로 이동, 엄호 및 투하를 준비한다. 제8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제10군단과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주노력을 하면서 공세를 유지한다. 군산 상륙을 위해 증강된

6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p.1.
6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Tokyo, 8 Sept. 1950. p.1.
6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p.4.

www.kci.go.kr

사단은 군산지역에 상륙하여 대전의 주요 교통로를 탈취 및 확보하고, 제8군의 전진을 지원하기 위해 차후작전을 준비하며 군산 및 대전의 비행장을 개발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사전에 투입되지 않으면 극동사령부의 지시에 의거 증강된 사단의 상륙작전이나 후속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 지역의 지정된 지역에 공중투하하며, 증강된 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거나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으로 공중 이동한다.[65]

100-C의 작전개념은 제8군 전방의 적 후방에 해상을 통해 대규모 포위를 하기 위해 부산에서 증강된 1개 사단을 예비로 운용하여 군산에 상륙하는 것이다. 군산의 상륙은 적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으로 제8군 전방의 적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66] 이는 미 제8군 통제 하의 1개 사단을 부산으로 이동시켜 미 제8군의 전방에 주둔한 적의 후방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의 주요 병참 중심지인 대전을 장악하여 제8군 전방에 위치한 적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제8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67] 따라서 100-C는 제8군 전방의 적 부대에 대한 주요 병참선과 재보급 및 증원을 차단하고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 주공의 후방에 있는 대전의 병참선을 목표로 한다.[68] 증강된 사단이 상륙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해안두보

6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p.2~3.
6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3.
6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3.
6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1.

www.kci.go.kr

가 설치되면 증강된 사단은 대전을 확보하고, 제8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김천 방향으로 공격하거나, 대전-대구 축선 이남에서 섬멸작전에 참여하거나, 북쪽방향의 대전-서울 축선으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69]

〈그림 2〉 100-C 기동계획

* 출처: GHQ,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Annex 'C',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상륙 이전 해안의 적 부대 무력화보다 작전적 기습에 우선을 두고 항공 및 해상 작전은 최대한의 범위로 남한 내에서 북한군

6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C", 8 Sept. 1950. pp.1~3.

www.kci.go.kr

을 고립시키고, 공중 및 해안정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D일 이전 폭격은 생략하며 H시 이전 폭격은 수색부대가 확인했거나 공격부대의 접근이나 상륙돌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적 위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70]

제8군은 제10군단 및 증강된 사단과의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주노력을 수행하면서 남동쪽에서 공세를 계속한다.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제10군단의 연결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면, 증강된 사단의 상륙작전이나 후속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대전 축선의 사전 지정된 투하지역으로 공중투하하거나, 해상을 통해 군산으로 이동하여 증강된 사단을 증원하거나 공중으로 군산 또는 대전 비행장에 공중이동하여 증강된 사단을 증원한다.[71]

100-C의 부록 중 정보, 항공 및 해상작전 협조는 100-A의 계획을 따르며, 인사, 민사 계획은 100-B의 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72]

라. 100-D 계획

100-D 계획도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100-D 계획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은 주문진에 상륙한 후 강릉과 원주방향으로 공격하여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73] 그러나 100-D 또한 100-C와 마찬가지로 100-B의 우

7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2.
7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p.2~3.
7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4.
73) 해병대사령부, 앞의 책, p.4-16.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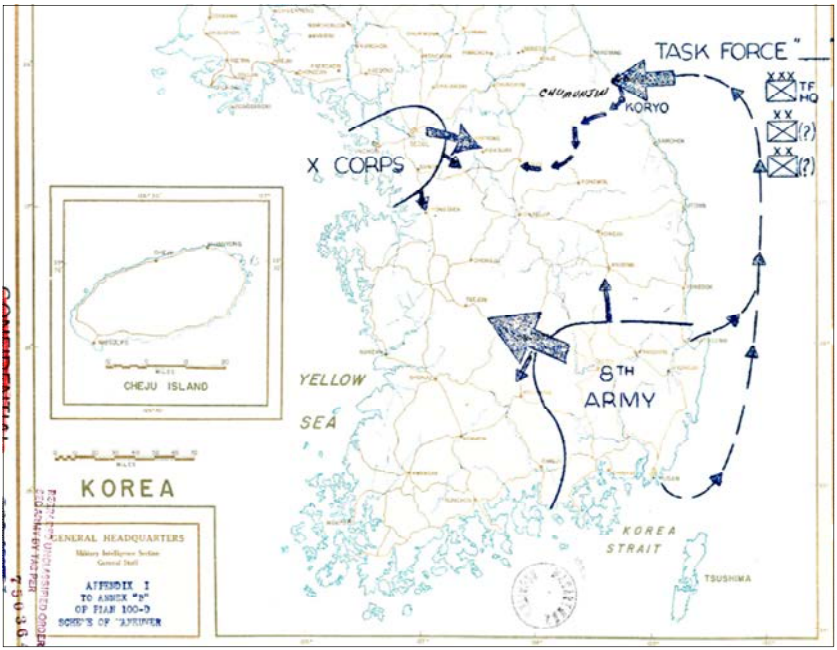
발상황에 대한 보조계획이다.[74]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은 성공적이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최소 2개 사단의 TF(한국군 1~2개 사단을 포함)가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하여 인천에 상륙한 부대와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한다는 계획이다.[75]

100-D는 인천지역에 대한 제10군단의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은 차단되고, 북한군의 지연작전에 대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제8군의 공격이 진행 중이며, 주보급로의 능력이 제한되고 회복된 지역에서 게릴라작전 수행으로 인해 주노력 부대의 전진 속도는 지체되지만 다른 방향의 제8군은 전진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76]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있고, 강릉-주문진 부근의 해안도로는 상륙지역에서 남북으로의 진출로를 제공하고 상륙지역 내에서 측면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강릉 부근의 서쪽 도로는 원주 일대의 적 주보급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TF에 포함된 한국 사단은 최소한의 사전계획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77]

---

7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2.
7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3.
7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1.
7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1~2.

www.kci.go.kr



〈그림 3〉 100-D 기동계획

* 출처: GHQ,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D, Annex 'B',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100-D의 기본개념은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인천-서울로부터 남동방향으로 공격하는 제10군단과 함께 북한군을 포위함으로써 금강 이남의 북한군을 차단 및 격멸하는 것이다.[78] 제10군단이 인천지역에 상륙하고 제8군은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하며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릉과 주문진 지역에는 최소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상륙군 TF를 상륙시켜 동해안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상륙부대는 제8군

78) Operations Plan Serial No.6-50(Based upon CINCFE Operations Plan No.100D),(1950.9.18.) p.1.

www.kci.go.kr

으로부터 최소 2개 사단을 차출하는데 그 중 1개 혹은 2개 사단 모두 한국군을 활용한다. TF는 중부지역에서 제10군단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포위하고, 남으로부터 북상하는 제8군과 연결하는 것이다.[79]

주요 상륙부대로는 인천지역에는 제10군단이 상륙하고. 강릉-주문진 지역에는 제8군으로부터 최소 2개 사단(1~2개 사단은 한국군)을 차출하여 상륙작전에 운용한다.[80] 주요부대별 임무로 극동해군사령부는 상륙군 TF를 강릉-주문진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강릉-주문진 지역에 해안두보를 탈취, 확보 및 방어하며, 상륙군 TF로 지휘권이 이양된 이후에는 상륙군 TF에 항공, 함포 및 초기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극동공군은 강릉-주문진 지역의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D-15~D-1일까지 목표지역에 대한 영상정찰을 제공하며 목표지역 내 적 부대, 보급 및 방어시설을 파괴하고 목표지역에 이르는 병참선을 차단한다. D일에는 제8군의 필수 항공지원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지역을 고립한다. 제8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제10군단 및 TF와 연결을 위해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주노력을 계속하면서 공세를 유지한다. TF는 강릉-주문진 지역의 지정된 해안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위해 서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공격한다. 제10군단은 현 임무를 계속하면서 TF와 연결하며, 연결 이후에는 TF의 지휘권을 인수한다.[81]

100-D의 기본적인 작전개념으로 제10군단은 인천-서울의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하여 제8군 및 TF와 연결하며,

7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2~3.
8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 D", 11 Sept. 1950, p.1.
81)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p.2~5.

www.kci.go.kr

TF는 해상돌격으로 강릉-주문진 일대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강릉-평창-원주 축선을 따라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한다.[82]

100-D는 연합 화력 및 해상수송 능력을 활용하여 제8군으로부터 2개 이상의 예비사단으로 적의 후방에 대한 해상돌격으로 광범위한 포위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해안 및 원주의 북한군의 병참선이 주된 목표이다. TF는 적을 포위 및 격멸하기 위해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여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하며,[83] 극동해군사령부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는 TF를 수송, 엄호 및 지원한다. 제8군은 탑재를 위해 TF를 부산 또는/그리고 포항으로 이동시키고, 대구-김천-대전 축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주노력을 하고 안동-영주방향으로 보조노력을 하면서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목표를 갖고 공세를 계속한다. TF는 강릉-주문진 지역에 상륙하여 해안두보를 설치하고 해안 병참선을 차단한다. 이후 원주의 북한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10군단과 연결을 위해 강릉-평창 축선을 따라 서쪽과 남서쪽으로 공격한다.[84]

100-D의 지휘관계로 작전준비 간에는 극동해군사령부가 TF를 통제하며, TF가 해안의 지휘권을 인수하면 총사령부가 TF를 통제한다. 제10군단과 연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10군단이 TF를 통제한다.[85]

100-D 계획은 기상, 제8군으로부터의 가용부대, 탑재능력 등

8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Serial No.6-50", 11 Sept. 1950, p.1.
8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No. 6-50", 11 Sept. 1950, p.1.
8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No. 6-50", 11 Sept. 1950, p.2.
85)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4.

www.kci.go.kr

의 제한요소가 있다. 11월 중순까지 기상은 양호해야 하며, 제3상륙전단의 도착과 제10군단의 이동이 완료되어 초기의 탑재 어려움은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제8군으로부터의 가용부대가 100-D 계획의 핵심으로 북한군의 낙동강 돌파 시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과연 제8군으로부터 가용 병력을 빼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상륙작전을 위해 제8군에서 차출된 한국 사단의 상륙작전에 대한 훈련 상태였다.[86]

마. 4가지 크로마이트 계획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로마이트 계획은 100-A·B·C·D 4개의 계획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100-A와 100-B 2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100-B 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100-A는 군산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계획인 100-B 계획에 대한 예비계획(alternative plans)이다.[87] 즉, 100-A는 인천에 상륙하는 100-B가 실시되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인 것이다.[88] 100-C(군산)와 100-D(강릉-주문진)는 인천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되, 제10군단이 인천에 상륙한 이후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100-B의 보조계획이라 할 수 있다.[89] 즉, 100-C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상황에 따라 군산에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것이고,

8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nnex 'B' Concept of Operation,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2.
87)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ing Message JCS 89960,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88) Roy E. Appleman, *op. cit*, p.494.
89)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1;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11 Sept. 1950, p.1.

www.kci.go.kr

100-D는 동해안의 강릉-주문진 지역에 추가적인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제8군의 반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트 장군이 계획수립반과 인천상륙에 대한 기본계획과 몇 가지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 23일 인천상륙작전계획(초안) 배부될 때 100-B 뿐만 아니라 군산과 강릉-주문진에 대한 100-C·D계획이 함께 회람되었다는 것에서도 100-B와 100-C·D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90] 100-C와 D를 계획한 것은 인천상륙과 더불어 부산 방어선의 안정과 북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제8군의 능력이 핵심이었기 때문이었다.[91]

100-A는 미 합참의 요구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하거나 실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된 것이지만,[92] JSPOG에서는 합참의 요구보다는 맥아더가 상륙지역을 변경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하였다.[93] 100-A와 100-C는 군산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 두 계획의 차이는 100-A의 경우 주 상륙지역이 군산이며, 100-C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고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한 후 제8군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산에 추가 상륙하는 보조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천상륙작전 당시 제8군에서도 100-C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94] 실제로 인천상륙작전 초기 제8군의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전개되자 100-C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였으나 상황이 다시 호전되어 취소된 바 있다.[95]

또한, 100-A와 100-C의 계획 중 일부 부록들이 100-B의

90) James F. Schnabel, *op. cit*, pp.141~142.
91) Combat Study Institute, *op. cit*, p.21.
92) James F. Schnabel, *ibid*, p.151.
93) Curtis A. Utz, *op. cit*, p.19.
94) Headquarters Eighth Army, "Operation Plan No.10(2d alternate)", Headquarters Eighth Army APO 301, 6 Sep. 1950.
95) James F. Schnabel, *ibid*, p.176.

www.kci.go.kr

계획을 적용하여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100-B 계획의 초안이 배부될 때 100-C와 D가 함께 배부되었고, 100-B보다 100-A가 늦게 작성된 것으로 볼 때 100-B가 크로마이트 계획의 기본계획이며, 100-C와 100-D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보조계획이며, 100-A는 100-B가 실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크로마이트 계획 중 100-A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일부는 100-A(군산 상륙)가 제8군의 반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제8군의 상황이 반격하기에 여의치 않아 100-A가 취소되고 100-B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96] 그러나 이는 크로마이트 계획 전체를 볼 때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크로마이트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8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계획으로 100-C와 100-D를 계획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이 바로 부산 방어선의 안정과 제8군의 반격 여건이었고,[97] 이를 위해 100-C와 100-D가 계획되었던 것이며,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8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8군이 남쪽에서 반격하는 시기를 D일에서 D+1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98] 그리고, 실제 인천상륙작전 당시에도 제8군의 반격 여건이 여의치 않자 100-C의 시행을 준비했었다.[99] 이는 제8군의 상황으로 인해 100-A가 취소되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8군의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으로 100-A가 취소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

96) 국방홍보원, "국방TV KFN스페셜 '작전명 크로마이트'", 2016. 9. 13.
97) Combat Study Institute, *op. cit*, p.21.
98) General Headquarters Fra East Command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UNC", CINCFE, 5 Sept. 1950.
99) James F. Schnabel, *op. cit*, p.176.

www.kci.go.kr

또 다른 의견으로는 대전이 함락되고 금강 방어선이 붕괴되어 100-A가 제외되었다는 것인데,[100]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이는 100-A가 제외된 이유가 아니라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된 이유이다.[101] 대전이 함락되고 금강방어선이 붕괴되어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될 당시에는 크로마이트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블루하트 계획이 취소된 이후 크로마이트 계획이 수립되었고, 100-A는 대전 함락과 금강 방어선의 붕괴로 인해 제외된 것이 아니라 8월 30일 100-A 계획이 발행되었으며,[102] 100-A 계획에서도 JSPOG가 이 계획의 지속적인 개발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103] 또한, 100-C 계획의 부록 중 정보, 항공 및 해상작전 협조계획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100-A 계획의 부록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104] 따라서, 100-A 계획이 제외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00-A가 적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feint)라는 주장도 있다.[105] 그러나 당시 상륙지역을 속이기 위해 군산뿐만 아니라 해주 등 여러 지역에 다양한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군산지역에 대한 양동작전은 그 중의 일부였던 것이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습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UN군이 군산에 상륙하는 것처럼 북한군을 속이기 위해 항공 폭격 및 함포 포격과[106] 소규모 기습작전 등 다양한 양동작전을

1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시 상륙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p.147.
101) James F. Schnabel, *ibid*, pp.140~141
102)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103)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al Planning", 30 Aug. 1950.
104)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8 Sept. 1950. p.4.
105)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p.376.
106) Curtis A. Utz, *op. cit*, p.24.

www.kci.go.kr

실시하였으며,[107] 제7함대에 군산지역에 상륙하는 것처럼 적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을 지시하기도 했다.[108] 또한, 군산의 예비계획에 대한 콜린스 미 합참의장의 요구에 JSPOG와 작전참모 라이트 장군은 군산에 양동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천에 상륙작전이 실행되지 않거나 실패한다면 예비계획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109] 이는 100-B를 위한 다양한 양동작전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100-A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동작전 중에는 군산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곧 100-A는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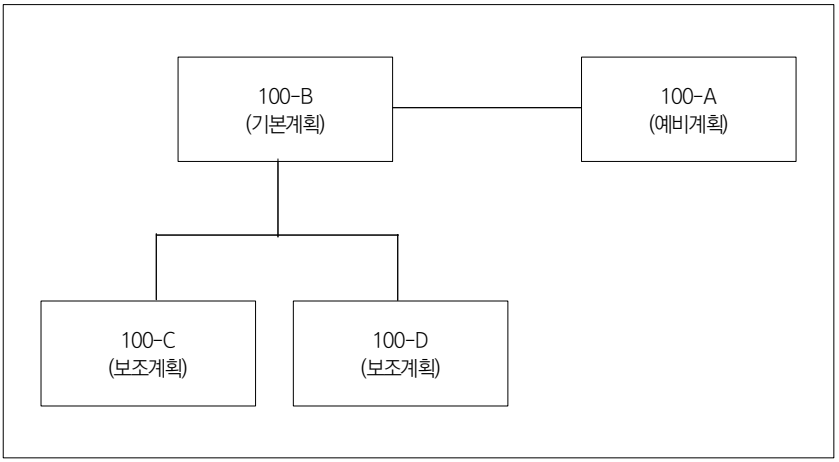
7월 23일 이후 콜린스 미 합참의장은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예비계획(alternative plan)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산 상륙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110] 8월 23일 콜린스 장군과 셔먼 미 해군참모총장이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을 제안하였다.[111] 8월 28일에는 군산에 대한 예비계획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미합참이 조건부로 승인하고,[112] 8월 29일 미 합참은 극동군사령부에 보낸 전문에서 군산에 대한 준비를 승인하였다.[113] 또한, JSPOG는 상륙장소에 대한 맥아더의 마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하여 군산 작전을 준비했다고 하였다.[114]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100-A

107) Headquarters Special Activities Group GHQ FEC,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 'Plan for Operations of Raider Troops in KUNSAN area'", 6 Sep. 1950.
108) Major David H. Mamaux, "Operation CHROMITE: Operational Art in a Limited War", 1987, p.19.
109) Combat Studies Institute, *op. cit*. p.25.
110) Roy E. Appleman, *op. cit*, p.494.
111) James F. Schnabel, *op. cit*, p.151.
112) Charles R. Smith, *op. cit*, p.88
113)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ming Message JCS 89960,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114) Curtis A. Utz, *ibid*, p.19.

www.kci.go.kr

는 취소되거나 제외된 것도 아니며, 북한군을 속이기 위한 feint라 할 수 없다. 인천에 대한 예비계획으로써 미 합참의 요구와 맥아더가 상륙장소를 변경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로마이트 계획은 기본적으로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100-B)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조계획(100-A, 100-C)을 수립하였고, 인천상륙작전(100-B)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으로 100-A를 수립했던 것이다.



〈그림 4〉 100-A·B·C·D의 관계

* 출처: 필자가 정리

www.kci.go.kr

4. 결론

지금까지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과정과 4가지 크로마이트계획의 내용, 이들 계획들의 특성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맥아더는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서해안의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적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과 함께 결정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남쪽에서 정면공격을 실시하는 것과 연계하여 제1해병임시여단과 제1기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는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다. 비록 블루하트(BlueHearts)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맥아더는 새로운 상륙작전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을 수립하였다.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은 인천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는 제8군과 연결하여 북한군을 격멸한다는 100-B를 기본으로 하며, 남쪽에서 반격하는 제8군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보조계획 100-C·D, 그리고 인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경우나 상륙장소가 변경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계획인 100-A의 4가지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크로마이트(Chromite)

www.kci.go.kr

계획의 계획수립과정과 4가지 크로마이트 계획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 시 실시되었던 전투 과정들에 대한 배경을 연구하여 계획과 전투수행과정을 연계하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4가지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향후 4가지 크로마이트(Chromite) 계획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능별 지원계획과 제10군단 등 관련 부대들의 작전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수행된 전투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1차 사료

CINCFE, “Outgoing Message”,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23 July 1950.

GHQ FEC, “APO 500, Operation Instruction No.3”, 6 July.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 ‘C’–Concept of Operations”,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A, Annex‘H’–Comma nd Relations”, 30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A’, Assignment of Forces to GHQ Reserve”, 17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100B, Annex ‘H’, Command Relations”, 12 Aug.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Tokyo, 11 Sept. 1950.

www.kci.go.kr

_____,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D”, Tokyo, 11 Sept. 1950.

_____, “Appendix ‘I’ Scheme of Maneuver, Annex ‘B’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 Plan, CINCFE No, 100C”, Tokyo, 8 Sept. 1950.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UNC”, Tokyo, 5 Sept. 1950.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 “Operations Plan No.6-50”, 11 Sept. 1950.

_____, “Outgoing Message, Change in Opn Order No. 1, GHQ,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s Plan No.5-50, Annex H, Command Relations”, 11 Sept. 1950.

_____, “Joint Chief of Staff to CINCFE, Incoming Message JCS 89960”,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29 Aug. 1950.

Headquarters Eighth Army, “Operation Plan No.10(2d alternate)”, Headquarters Eighth Army APO 301, 6 Sep. 1950.

Headquarters Far East Air Force, “Operations Plan Serial No.5-50 (Based upon CINCFE Operations Plan No.100C)”, 16 Sept. 1950

_____, “Annex C, Concept of Operations, Operations Plan Serial No.5-50, Annex H, Command Relations”, 20 Sept. 1950

Headquarters Special Activities Group, Memorandum for The Chief of Staff “Plan for Operations of Raider Troops in KUNSAN area”, 6 Sep. 1950.

Headquarters X Corps, “Headquarters X Corps War Diary Summary for Operation Chromite 15 Aug. to 30 Sep. 1950”, 1950.

Hq X Corps, “Op O #1”, Hq X Corps, 28 Aug. 1950.

www.kci.go.kr

_____, “Operation Chromite, 15 August - 30 September 1950”,
_____, “Staff Study 2nd Edition”, 24 Aug. 1950.

2. 단행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3.
국방홍보원, “국방TV KFN스페셜 ‘작전명 크로마이트’”, 서울: 국방홍보원,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시 상륙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참고교범 10-8 상륙전사』, 화성: 해병대사령부, 2008.
Charles R. Smith, U.S. Marines in the Korean War(Washington DC: History Division USMC, 2007).
Combat Studies Institute, CSI Battlebook Operation Chromite(Inchon)(CSI,1984).
Cutis A. Utz, Assault from the Sea, The Amphibious Landing at Incho(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2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2).
Lynn Montross and Captain Nicholas A. Canzona, US Marines Operations in Korea Vol.II, The Inchon-Seoul Operation (Washington DC USMC,1955).
Lynn Montross, “The Inchon Landing-Victory Over Time and Tide, Our First Year in Korea,” Marine Corps Gazette(July 1951) (Historical Branch, G-3, Headquarters Marine Corps, 1951.
Roy E. Appleman, U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www.kci.go.kr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1992).
HQ MC,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Sea(Washington: USMC, 1996).

3. 논문

이상호. “인천상륙작전의 크로마이트 작전 4가지 계획과 그 함의”, 『군사』 제110호(2019): 359-388.
Major David H. Mamaux, “Operation CHROMITE: Operational Art in a Limited War”,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Kansas, 1987.

www.kci.go.kr

<Abstract>

Planning process and four operational plans for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Operation Chromite)

Seo Chijong

Until now, most studies about the Inchon Landing operation have been focused on the operation process and outcome rather than on the planning of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plans of the Inchon Amphibious Operation and provide a basis for research linking plans with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y studying the planning process and the contents of 4 Chromites.

MacArthur had become convinced that Amphibious operat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rear of NK forces to end the war early and regain the initiative, and he evaluated that Landing on Inchon would expose the NK forces where they were most vulnerable. It was determined that securing Inchon and Kimpo Airport would enable US and ROK forces to secure Seoul and the enemy's line of communications and enable a decisive attack in conjunction with counter on the Naktong perimeter. Operation Bluehearts had been planned to be an amphibious attack on Inchon by the provisional 1st Marine Brigade and 1st Cavalry Division, but was canceled because US and ROK forces could not halt the advance of the enemy.

Although Operation BlueHearts was canceled, MacArthur drew up a new Amphibious operation. Operation Chromite was based on 100-B, which aimed to destroy NK forces in conjunction with the 8th Army. The plan was published in 4 plans: 100-C and D for the contingencies of the 8th Army countering from the south, and 100-A in case

www.kci.go.kr

Amphibious operation was impossible or unsuccessful in Inchon, and in case MacArthur changed the landing site.

Keywords: Inchon Amphibious Operation, Operation Chromite, Operation Bluehearts, Operation Plan 100, MacArthur

www.kci.go.kr